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군날개(익상편)

성별	남성
나이	47세
직종	용접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약 24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 6월에 눈을 비비고 나서 충혈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여 군날개를 진단받았고, 2019년 7월에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근로자는 작업장 근무 시 노출되었던 분진과 자외선에 의해, 상병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가 수행했던 용접작업의 대부분은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하였으나, 간헐적으로 보안면을 착용하지 않고 가용접을 하거나, 인근 용접사의 용접작업시 간접 노출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내 또는 그늘진 화학플랜트 현장과 실내의 공무샵 등에서 1일 평균 70%정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태양광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현장에서 작업시간은 전체 용접시간의 30%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용접작업 이외의 업무시간에는 배관공의 업무를 실내의 플랜트 현장에서 보조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므로 태양광의 직접 노출은 1일 근무시간(8시간 기준) 중 2시간 미만(최대 용접시간 6시간의 30%)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노출 수준은 용접흡의 경우 0.054-0.48 mg/m³이며 망간 등 다른 금속류의 경우는 불검출(ND)또는 극미량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노출되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안질환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2019년 6월, 눈을 비비고 나서 충혈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내원해서 군날개를 진단받았고, 내원 당시 시력은 오른쪽 0.6-1, 왼쪽은 1이며 안압은 각각 15mmHg, 12mmHg이었다. 오른쪽에 cylinder(난시) -0.25D, 왼쪽에는 0D 이고 다른 특이소견은 없었다. 2019년 7월에 오른쪽 군날개 제거술을 받았다. 현재는 추적 관찰중이다. 과거 흡연자로 5년간 10개비인 2.5PY의 흡연력이 있으며, 주 1회 소주 1병의 음주력이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은 없으며, 군날개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2019년 6월에 군날개를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상에서는 2007년부터 약 12년간(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1995년부터 약 24년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용접으로 인한 자외선, 야외작업으로 인한 햇빛노출과 분진 노출이 있다. 근로자는 용접으로 인하여 자외선에 노출되었으나 용접작업과 군날개의 연관성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보고가 없으며, 일부 야외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업무로 인한 햇빛 노출 또는 분진 노출의 기여 정도는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 군날개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